



주간통일정세 2011-21(2011.05.16 ~ 05.2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1-21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 '굽 있는 구두' 신은 김정일...건강 호전됐나(5/16, 연합뉴스)

-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바닥이 평평하거나 운동화 형태의 신발을 신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시 굽 있는 구두를 신기 시작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특히 쓰러지기 전에는 '키 높이 구두'를 자주 신었던 김 위원장이라 굽이 있는 구두를 다시 꺼내 신은 것은 건강 호전의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며 보도
-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4일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구장군의 구장양어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송고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2~3cm 정도의 굽이 있는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다며 전함.
- 김 위원장은 162cm인 키 때문인지 굽이 높은 구두를 즐겨 신었고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도 6~7cm 정도 돼 보이는 키 높이형 구두를 신고 등장했으나 2008년 11월 초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사진에서는 '컴포트화'를 신은 모습이 포착돼 같은 해 중반 뇌혈관계 질환을 앓았다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며 뉴스는 전함.
- 또한 작년 말에는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 중 움직임이 불편했던 왼손으로 아파트의 방문을 여는 모습이 조선중앙TV로 방영돼 김 위원장의 건강이 나아진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옴.

##### ● "北 장성택, 5월말 中 동북지역 순회 방문"(5/16, 연합뉴스)

-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이 황금평 및 라선특구 개발공사 착공식 참석과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말 중국 동북지역을 순회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16일 단둥(丹東)과 창춘(長春) 소식통들에 따르면 장 부장은 이달 28일 중국을 방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접해 있는 황금평의 입 가공산업단지 개발공사 착공식에 참석한 뒤 지린(吉林)성 창춘(長春)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 장 부장은 이어 라선특구로 건너가 오는 30일 열리는 훈춘(琿春)-라진항 도로보수 공사 착공식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함.



- 황금평 개발 착공식에는 중국 측에서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참석해 장 부장과 황금평 임대 협정을 정식 체결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청춘에서는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장 부장을 만나 라선특구 개발에 필요한 시멘트 공장 건설과 라선특구 전력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함.
  - 또한 연합뉴스는 중국은 라선특구 전력 공급과 관련, 훈춘에 건설될 60만mw급 화력발전소에서 송전하는 방법과 옛 소련이 건설했으나 남아 가동이 중단된 선봉 화력 발전소 설비를 개조, 북한이 전력을 자체 생산토록 방안을 놓고 북한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진다며 보도
  - 이어 라선특구에서 열리는 훈춘-라진 도로보수 공사 착공식에서는 장 부장을 비롯한 북-중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라진항 부두 확장 공사와 식품공장 건설 등 8개 항목의 북-중 합작사업 착공식도 함께 열릴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함.
  - 이에 관련해 이미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들이 라선특구 투자를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며 뉴스는 전함.
  - 장 부장은 외자 유치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를 이끌며 황금평과 라선특구 합작개발 등 중국과의 경협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짐.
- **北 외무상 "한반도 비핵화 준비 돼 있다"(5/17, 이타르-타스통신)**
    - 북한의 박익춘 외무상은 북한이 지난 2005년의 한반도비핵화 공동성명에 입각해 한반도 전체에서 비핵화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다고 17일 이타르-타스통신에 밝힘.
    - 박 외무상은 이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우리는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해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 한다는 공동성명 정신을 존중 한다"면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수령의 유지였으며 북조선이 나아가야 할 불변의 과정"이라고 평가했으며,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친선 및 협력관계는 긍정적이며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고 덧붙임.
    - 이어 "두 나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상호간에 돕는 숭고한 협력정신을 보여줬다"면서 "두 나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함.
  - **김정일, 러 프라드코프 대외정보국장 접견(5/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미하일 프라드코프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의 대외정보국(SVR)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대표단 일행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음.
- 접견과 이후 열린 만찬에는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동석함.

● **北신문, 5.18 맞아 남북관계 개선 촉구(5/18, 연합뉴스)**

- 5.18 광주민주화운동 31주년을 맞아 북한 매체들은 18일 남북관계 경색을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필명 논설을 싣고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파쇼운동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한 항쟁"이라며 "남조선 인민들은 보수 당국의 반민족적 대결정책을 철회시키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며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전 조선을 지배할 야망 밑에 반공화국 핵소동과 북침전쟁 도발책동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며 "남조선 집권세력은 북남대화과 협력을 차단하고 반공화국 모략과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해 북남관계를 사상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었다"고 비난
-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도 이날 '광주인민봉기는 외세와 친미매국노들의 파쇼독재를 끝장내고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라며 반미투쟁을 호소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글을 여러 건 실음.

● **北 김정일, 과수농장 현지지도(5/18,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의 룡전과수농장과 덕성과수농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8일 전함.
- 김 위원장은 두 과수농장을 시찰하고 "과수업에서 기본은 종자문제"라며 "수확고가 높고 맛이 변치 않으면서도 경작에 유리한 키 낮은 사과묘목을 대량생산해 모든 과수원들에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
- 그는 "인민과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사철 떨구지 않고 먹이기 위해서는 과일가공시업을 개선해 과일즙, 과일통조림, 과일짬(잼)을 비롯한 과일가공품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며 "현대적이고 능력이 큰 과일가공공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함.
- 이날 현지 지도에는 김기남·최태복·태종수 당비서, 곽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등이 수행함.



● **北매체, 中텐진 소개…북중 친선 강조(5/20, 민주조선)**

-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20일 중국을 전격 방문한 가운데 이날 북한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북중 친선을 강조하며 중국의 텐진(天津)시를 소개
- 민주조선은 '조중 친선의 역사가 깃든 천진(텐진)의 새 모습'이라는 글을 통해 텐진시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몸소 여러 차례 찾아 조중 친선의 화원을 활짝 꽃피우신 역사의 땅"이라고 소개하며 텐진시의 과거와 발전상을 상세히 소개
- 신문은 "텐진시에서는 항구도시의 특성에 맞게 항만건설과 항 운영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고 있다"며 "항의 화물처리량이 2008년에 3억5천400만t에서 2010년 4억1천300만t으로 늘어나는 등 시의 경제발전뿐 아니라 나라의 공업, 대외무역, 수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설명
- 신문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 5월 텐진을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텐진항과 활력 넘치는 텐진시내를 돌아보고 시가 몇 해 사이에 몰라보게 전변(변화)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임.

[김정일 국방위원장 訪中(방중) 관련기사]

○ **김정일 방중..김정은 동행여부 확인 안돼(5/20, 연합뉴스)**

-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개월 만에 다시 방중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우리 정부 소식통은 20일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한 것으로 안다”면서 “러나 (투먼에 이어 도착한) 무단장(牧丹江) 시 숙소에 머무는 방중단 인원 70여 명의 공식 수행명단에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으나 “김정은 부위원장이 동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는 이날 새벽 투먼(圖們)에 도착한 뒤 오전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牧丹江)으로 도착해 상당 시간을 보냈으며, 다른 행선지로 향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뉴스는 전함.
- 이날 새벽 투먼 일대에 경비가 대폭 강화돼 북한 고위인사의 방중설이 나돈 가운데 김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는 북한의 남양과 투먼을 잇는 다리를 통과했으며, 투먼에서 잠시 머문 후 이동해 이날 오전 무단장에 도착해 홀리데이인(假日)호텔에 여장을 풀었음.
- 김 위원장 일행은 이어 고(故) 김일성 주석을 비롯해 항일 공동투쟁을 했던 동북항일연군 기념탑이 있는 무단장 베이산(北山)공원을 방문하고 서 부근의 징보후(鏡泊湖.경박호)를 찾은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은 단독방중은 언제(5/20,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일 방중하면서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





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단독방중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김정은은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아버지의 공개 활동을 수행하며 보좌하는 동시에 내부 장악력을 키우는 '속성코스'를 밟아왔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외부로부터 '2인자' 지위를 인정받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
- 또 지난해 10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새 지도부'의 방중을 바라는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함에 따라 머지않아 김정은의 방중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음.
- 단독방중은 후계자로서 북한 사회에 뿌리 내렸음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면서 외교무대에도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김정은은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뒤 단독방중을 통해 대외적 공인을 받았던 부친의 경로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김정은도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을 수행단으로 거느리고 따로 방중 해 중국 수뇌부를 만나면서 대내외에 존재를 과시할 가능성이 크지만,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 위원장이 건강을 다소 회복하는 징후가 나타나면서 후계체제 추진 속도도 얼마간 조정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뉴스는 밝힘.

#### ○ 수행단 면면에도 시선(5/20,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 8월에 이어 9개월 만에 또 방중함에 따라 수행원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은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사실상 국정을 대행하고 김정은 후계체제의 후견인으로 분류되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의 최대 과제인 경제난 해소를 위해 나선 특구개발 등 가속되는 북중 간 경제협력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방중에 동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장 부위원장과 함께 북한의 외자 유치에 총괄지휘 하는 리수영 합영투자위원장도 이번 방중 수행원 명단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
- 또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등 북한에서 중국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수행단에 대거 합류했을 것으로 보임.
- 이들은 김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북중 관계뿐 아니라 남북관계나 6자회담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할 것으로 보이며, 김 위원장의 방중 기간 북미관계와 6자회담도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대미외교를 총괄하는 강석주 외교 담당 부총리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수행단에 이름을 올렸을 수도 있다고 뉴스는 추정
- 아울러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문단에 포함됐다면 김정은 후계체제를 이끄는 정치적 후견그룹도 수행원에 대거 포함됐을 것으로 짐작되며, 작년 9·28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과 함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르며 군부 내 후견인으로 부상한 리영호 총참모장이 유력
- 리영호 총참모장과 더불어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 이전부터 후계자 수업



을 맡아 사실상 '사부' 역할을 해온 현철해 국방위 국장과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앞장선 국가안전보위부의 우동측 제1부 부장도 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뉴스는 전함.

#### ○ 후계 보장에 방점찍힌 듯(5/20,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일 새벽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되풀이된 방중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이에 여러 관측을 내놓고 있으나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과시하고 중국으로부터 이를 보장받으려는 의도가 배어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김 위원장 일행이 투먼(圖們)을 경유해 무단장(牡丹江)으로 직행해 선친인 고(故) 김일성 주석의 항일 유적지가 있는 베이산(北山) 공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 점도 그런 의도를 명백히 한다는 지적으로 항일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룬 혁명정신을 받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
-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8월 방중에서도 같은 장소를 찾았고 9개월 만에 다시 방문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부친의 혁명정신 계승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옴.
- 특히 김정은이 이번에 동행했다면 미래의 카운트파트 격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과의 회동 가능성도 있으며,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포함한 수뇌부와의 회동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런 자리를 통해 김정은이 중국 수뇌부와 자연스런 교류의 자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는 전함.
- 일각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통해 이전보다 진전된 개혁개방 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지난해 8월의 방중 행로를 역순으로 밟아 투먼-무단장-하얼빈 구간에서는 권력승계 의지와 정당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그에 이어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으로 이동해 이른바 '창·지·투(長吉圖)계획'의 핵심지역을 재차 찾는 '경제 강조'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 ○ 작년 8월 귀국행로 역주행(5/20, 연합뉴스)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투먼(圖們)을 통해 방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위원장은 그간 주로 단둥(丹東)을 통해 중국을 찾았으며 작년 8월에는 이례적으로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을 통해 방중한 뒤 투먼을 통해 귀국했었다며 연합뉴스는 전함.
-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지안보다 훨씬 동쪽이자 두만강 하류쪽인 투먼을 통해 중국을 찾은 것을 놓고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음.
- 김 위원장 일행이 이날 투먼을 거쳐 무단장(牡丹江)으로 가는 등 작년 8월 귀국행로를 역으로 거슬러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작년 귀국길에 미진하게 처리했거나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됨.
- 작년 8월 김 위원장이 귀국길로 택했던 창춘(長春)→하얼빈(哈爾濱)→무단장→투먼 경로에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 및 혁명유적지가 산재해 있음.
- 김 위원장 일행은 이번 방중 행로에서 김일성 주석의 혁명 유적지 순례



를 강화해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3대 세습을 위한 정지작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추정

- 김 위원장 일행이 베이징을 방문할 것인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로 만일 창춘 등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회동이 이뤄진다면 이를 통해 식량 지원, 북중경협 활성화 등 경제현안과 한반도 안보관련 문제를 협의했다면 굳이 베이징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뉴스는 덧붙임.
- 김 위원장 일행은 베이징 대신 개혁개방 의지를 보이기 위해 상하이(上海)나 선전(深천<土+川>)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베이징 외교가는 내다보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 이틀째..경협행보 주력할 듯(5/21,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특별열차가 21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 도착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외부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9시(한국시간 오후 10시)께 무단장역을 출발해 하얼빈(哈爾濱)을 경유해 창춘에 도착한 김 위원장 일행은 지난해 8월 방중 당시 묵었던 난후(南湖)호텔에 일단 여장을 푼 것으로 알려졌으나 창춘에서의 일정은 물론 차후 동선도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며 뉴스는 전함.
- 김 위원장이 작년 8월을 뺀 다섯 차례 방중에서 모두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수뇌부와 만났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그런 관례를 되풀이 할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따라서 창춘 방문에서는 '경제시찰'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현지의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양국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북지방의 핵심도시인 창춘에서는 경협 현장 시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일정과 동선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 김정일, 창춘 이치자동차 방문(5/21, 연합뉴스)

- 21일 중국 창춘(長春)을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날 오전 이치(一汽)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뒤 숙소인 난후(南湖)호텔에 도착했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이치 자동차는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업체로, 지난해 8월 창춘 방문 당시 김 위원장이 이 공장을 시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뤄지지 않았음.

#### ○ 北中 베이징서 정상회담 가능성(5/21,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특별열차가 21일 창춘(長春)을 출발해 남하하고 있어 그 목적지가 선양(瀋陽) 또는 선양 경유 베이징(北京)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이날 오전 8시 20분(이하 현지시각)께 특별열차 편으로 창춘 역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난후(南湖)호텔에서 잠시 휴식한 후 창춘이치자동차를 시찰하고서 같은 날 오후 2시 20분께 특별열차에 탑승해 선양-베이징 방향으로 향하는 게 목격됨.





-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크게 양국 간 경제협력, 권력승계 보장, 국제 및 지역 정세가 의제로 오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
  - 또한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국에 후계 보장을 촉구하면서 북중 경협 강화로 국제사회에 개혁개방 의지를 보이고, 뼈그덕 거리는 남북관계를 우회해 북중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함.
- “北 장성택, 김정일 방중에 동행”(5/21, 아사히신문)
-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신문은 장 부위원장이 외자 도입의 권한을 가진 만큼 이번에 북중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교섭이나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
  -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나진항 개발이나 기업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층 북한으로 경제 진출을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예측
- 동선으로 본 방중 목적(5/22,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일곱 번째 중국 방문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자질구레한 의전행사 없이 필요한 일만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우선 동선을 크게 그려보면 북한의 최북단에서 북쪽으로 달려 흑룡강성, 지린(吉林)성, 랴오닝(遼寧)성 등 동북3성을 돈 점이 눈에 띈다고 뉴스는 보도
  - 이를 두고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런 동선에 김 위원장의 북중 경협 의지가 짙게 배어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의 접경인 동북3성에 ‘애정’을 재차 표시함으로써 중국에 개혁개방과 경제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했다고 말함.
  - 동해출항권 허용을 바탕으로 한 창지투 계획이 본격화하면 북중 경협은 남북경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나, 이로써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극도로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
- ‘무숙박’ 사흘 강행군..건강과시(5/22, 연합뉴스)
- 20일 새벽 투먼을 통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은 예상과는 달리 유적지 방문, 산업현장 시찰, 야간이동 등 쉽 없는 일정을 이어가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비웃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이 이처럼 기차에서 밤을 보내며 사흘간 무숙박 이동을 계속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는 한편 중국 지역을 보다 폭넓게 돌아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스는 전함.
  - 베이징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김정일의 건강호전설은 계속 나왔는데 이번 이동속도나 행적을 보면 건강에 어느 정도 자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여행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건강우려가 상당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이 강행군이라고 할 만큼 실 틈 없이 이동하며 남행한 것은 등



북지역 뿐 아니라 중국지역의 더 많은 곳을 돌아보며 중국의 변화상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 동행한 북한인사들에게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절감 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추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뉴스는 전 함.

#### ○ 김정은 어디서 뭐하나(5/22, 연합뉴스)

- 방중 3일째가 되도록 김정은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하고 있느냐 를 놓고 “하고 있다”와 “안하고 있다”라는 엇갈린 분석과 정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논란을 잠재울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 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정은이 공식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비공식적으로 동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중 목적중 하나가 권력 세습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받아내고 대내적으로 제 3대 체제가 김일성 주석의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는 데 있다면 김정은과 함께 방중 할 필요가 있기 때문
- 김정은의 김정일 동행여부는 이처럼 엇갈리고 있지만 만약 중국을 방문 중이라면 김정일과 동행하면서 후계자로서 외교수업을 받는 동시에 차 세대 지도부를 포함한 중국 지도층과 안면을 익히고 교류의 끈을 엮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
- 한편 김정은이 북한에 잔류했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외국에 나간 사이 국 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뉴스는 전함.
- 최고 권력자가 해외를 방문하는 사이 그를 대신해 북한 내부를 안정적으 로 관리하는 한편 독자적인 현장지도 등을 통해 통치능력을 키우려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예상

#### ○ 원자바오"中발전 활용기회 주려 김정일 초청"(5/22, 연합뉴스)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 문 초청과 관련, “중국의 발전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북한)의 발 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원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들의 방중에 대해 원대한 안목을 갖고 전략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중국은 유 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함.

#### ○ 김정일·장쩌민 회동 가능성(5/22, 연합뉴스)

- 방중 사흘째인 2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장쑤(江蘇)성 양저우(揚 州)로 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과의 회동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양저우로 향하는 목적은 물론 일정을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추론이 있을 수 있으며 장 전 주석 과의 회동 가능성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함.
- 일각에서는 권력승계 작업을 진행 중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장 전 주석 과 회동해 그와 관련한 ‘설명’ 하고 이해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



○ 실제 드러낸 김정일 방중 목적(5/22, 연합뉴스)

-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개월 만에 방중한 목적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원 총리의 얘기는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의 발전상을 북한이 벤치마킹하도록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액면 그대로 보면 이런 중국 수뇌부의 초청에 김 위원장이 응한 것은 북한 역시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라고 뉴스는 전함.
- 사실 이번 방중에서도 김 위원장은 이미 투먼-무단장-하얼빈-장춘-선양 등의 동북3성 거점을 모두 방문했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과 중국 간에 논의가 이뤄지는 장춘-지린-투먼을 거점으로 한 이른바 ‘창·지·투(長吉圖) 계획’과 관련해 모종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는 관측
- 특히 김 위원장이 이번에 동북3성 거점을 모두 방문해 북중 경협에 실질적인 계약체결로 이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어 김 위원장이 다시 남부 개혁개방의 신천지를 둘러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 실제 원 총리의 도쿄 발언에는 중국은 그동안 6차례의 김정일 위원장 방중을 통해 개혁개방을 유도했고, 이번에도 그런 차원이라는데 강조점이 있으며, 그러면서도 뭔가 ‘기대’도 깔려 있어 보인다며 뉴스는 보도

■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우리(北) 식의 자소전극 생산기술 개발과 도입에서 모범을 보인” 발명총국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5/16, 중방)
- 김정일, 5.17 러시아연방 대외정보국 대표단(단장 : 엠.예.프라드코브 국장) 접견 및 만찬 마련(5/18, 중통·중방)
  - 우동측(黨정치국후보위원), 김계관(외무성제1부상) 등 참가
- 김정일, 김일성생일전문을보내온여러나라당및국가수반들에게답전(5/17,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北, 김정일이 2008.12.24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찾은 때로부터 경공업발전을 위해 근 80여개 단위를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5/17, 중통)
- 김영남, 5.17 駐北슬로베니아대사(두산벨라)에게 신임장 접수 및 담화(5/17, 중통)

나. 경제

● 北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5/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대 규모의 무역박람회 격인 제14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16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



- 김문정 조선국제전람회 사장은 개막연설에서 "전람회 기간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 사이의 다방면적인 경제무역활동과 과학기술교류가 진행 된다"며 "앞으로도 조선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와 경제협 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북한은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에 국제상품전람회를 여는데 북한에서 만 든 기계설비와 강철제품, 전자제품을 비롯해 식료품과 의약품 등 각종 상품이 전시되며, 전람회에 참가한 해외기업들은 북한 측 회사와 투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함.
- 인천시-민간단체 北에 말라리아 방역물품 지원(5/16, 연합뉴스)
- 인천시는 16일 오후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시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황 해남도 해주시, 강령군, 용진군 등 7개 지역에 총 2억 원 상당의 말라리아 진단키트, 모기장 원단, 임신부용 감염 예방약, 유충구제약, 모기 향 등을 지원한다고 뉴스는 전함.
  - 이번 지원물품은 지난 9일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받았으며 1차분은 이 달 중 경의선 육로를 통해 전달될 예정임.
- "北 분배감시 수용하며 식량지원 재촉구"(5/17, 미국의소리(VOA); 연합뉴스)
- 북한이 식량 분배 감시의 수용의사를 밝히며 식량 지원을 호소했다고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의 구호단체 '사마리탄 스 퍼스'(Samaritan's Purse)측이 밝힘.
  -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와 함께 방북했던 켄 아이작스 부회장은 17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난 2008년 미국의 대 북 식량지원 당시 미국 구호단체의 분배 감시를 허용했는데 이번에도 그와 같은 수준의 분배감시 조건을 수용하는 뜻을 밝혔다"고 전함.
  - 아이작스 부회장은 "그레이엄 목사가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의 식량사정과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그러나 민간단체 대표 자격으로 방북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미국 정부에 전달해달라는 메시 지는 없고 미국으로 귀국하고 나서 미국 당국자들과 만날 계획도 없다"고 밝힘.
  - 한편 지난 2월에 이어 3일부터 10일까지 평안남도과 강원도를 방문했 던 캐나다 구호단체인 '퍼스트 스텝스'는 방송에 "남포의 경우 2월 1인 당 배급량이 300~400g이었는데 5월에는 250g으로 줄었고 원산은 400g에서 190g으로 줄었다"며 "주민들이 냉이나 썩, 달래, 민들레, 칡뿌리 등을 많이 먹고 있었다"고 식량사정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한미 "킹 특사 방북' 이후 대북 쌀 지원 결정"(5/17, 연합뉴스)**
  - 미국은 17일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이끄는 대북식량평가단의 방북결과를 보고 대북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국과 의견을 모았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한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과 오찬을 함께 하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사람을 보낼 수 있고 그 평가에 기초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양국은 이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 이어 이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팀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도 이것이 유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평가단 방북은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함.
  - 그는 또 "미국 평가단이 북한에 가게 되면 식량지원의 모니터링 조건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예상 한다"면서 "한미 간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조건은 없지만 미국은 종래에 적용된 조건들을 개선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임.
  - 또한 한미는 '남북회담→북미회담→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대화 재개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스는 보도
  
- **北총리, 곡창 황해남도서 농사지원대책 논의(5/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13일부터 15일까지 황해남도 영농실태를 돌아보고 현지에서 협의회를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함.
  - 중앙통신은 "최영림 총리는 모내기 전투가 시작된 황해남도 영농실태를 현지에서 요해(사정을 알아봄)했다"며 "총리는 재령군, 강령군, 연안군, 배천군을 비롯한 도 내 여러 군의 농장을 돌아보고 해당 단위에서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힘.
  - 협의회에서는 곡창지역인 황해남도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각과 관계 기관이 황해남도의 농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
  - 이어 중앙통신은 "총리는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생산문제와 룡매도간 석지 건설정형을 요해하고 실무적인 문제들을 대책했다"고 덧붙임.
  
- **"美 대북식량 장기간·소량 지원할 것"(5/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이 대북식량지원을 하더라도 소량을 장기간에 나눠서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전함.
  - 이 방송은 복수의 미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식량계획(WFP)이 추



산한 식량부족분 43만t은 미화 3억 달러 규모로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의 동의가 어렵다"며 "한꺼번에 많은 식량을 보내기보다는 조금씩 나눠 지원하면서 북한이 분배 감시에 협조하지 않으면 식량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더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식량이 소규모가 될지라도 일단 지원을 결정하면 그동안 보류돼온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재개되면서 식량부족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은 "지원재개를 위한 마지막 통과의례"라며 "이번에 방북하는 킹 특사와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관계자들이 단 며칠 동안 북한을 둘러보는 것으로 민간구호단체와 WFP의 식량수요조사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힘.
- 그는 "그러나 미국 정부 어디에서도 한국정부의 양해가 없는 상태에서 대북식량지원을 서두르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며 식량지원재개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

#### ● 민간 北지원 '공공'...지원재개 아우성(5/18, 연합뉴스)

- 남북교역과 대북지원을 대폭 제한하는 5.24조치 이후 1년간 민간단체와 종교계 등의 대북지원 사업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상당수의 지원계획이 성과도 내기 전에 줄줄이 무산되면서 대북지원단체들이 '개점휴업'을 면치 못한 상태로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제3국을 통한 대북식량지원을 강행하고 대북지원단체도 인도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뉴스는 전함.
- 지난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품 총액은 21억 원으로 2009년의 77억 원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작년 5.24조치가 시행된 이후 북한지역의 수해구호를 위한 '반짝' 지원이 이뤄지긴 했지만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로 민간의 대북 취약계층 지원마저 중단되면서 가뜩이나 좁았던 지원통로가 더 좁아졌다고 뉴스는 전함.

#### ● "김일성 '혁명동지' 中천레이 가문, 北에 투자"(5/18,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혁명 동지'인 천레이(陳雷, 2006년 작고) 전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장의 아들 샤오핑(曉峰, 52)씨가 어머니의 고향인 황해북도 광산 개발 등 대북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샤오핑 씨가 지난달 어머니 리민 씨의 고향인 황해북도를 방문해 몰리브덴 광산 개발과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개발, 북한 인력수출 등의 합작사업을 위한 투자 협약 의향서를 북한과 체결했다고 소식통들이 18일 전함.
- 소식통들에 따르면 천 씨는 우선 황해북도 곡산에 있는 몰리브덴 광산



에 300만 달러(33억 원)를 투자, 연내에 연간 40만t을 채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광산 개발에 필요한 양수기 등 200만 위안(3억 3천만 원) 규모의 장비는 북한에 무상 제공하고 광산개발 기술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뉴스는 전함.

#### ● "훈춘-라진 도로보수 이달 말 착공"(5/18, 연변일보)

- 이달 30일 북한 라선특구에서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과 중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훈춘(琿春)에서 북한 라진항을 잇는 도로 보수 공사 착공식이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변일보가 이달 말 이 공사가 시작된다고 18일 보도
- 신문은 훈춘시 통상구 판공실을 인용, 시공 설계와 현장 측량 등 도로 보수 착공을 위한 준비 작업이 완료됐으며 이달 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힘.
-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에서 북한 원정리와 청계, 선봉을 거쳐 라진항과 연결되는 총연장 53.5km의 이 도로 보수 공사에는 1억5천만 위안(250억 원)이 투입돼 비포장 구간의 포장과 선형 개선, 16개의 교량 보수, 배수구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며, 완공되면 평균 시속 40km로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신문은 전함.
- 또한 이 도로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전액은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중국이 부담하기로 했으며 뉴스는 밝힘.
- 신문은 이 도로 보수 공사가 북·중이 협력하기로 한 라선특구 개발을 촉진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으며, 양국 경제협작과 지린(吉林)성의 '지에강추하이(借港出海, 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함) 전략'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 북한채권 가격 2년 새 2배 급등(5/18, 연합뉴스)

-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채권이 2년간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18일 국제금융센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북한 채권은 이달 들어 액면가 1달러당 14센트에 거래되면서 2년 전인 2009년 5월 5.75센트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함.
- 북한 채권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당시 20센트,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 당시 26센트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2008년 이후 북한의 6자회담 합의 번복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4센트까지 급락했다고 함.
- 그러나 2009년 하반기 이후 반등세를 보이면서 같은 해 말 9센트로 올랐고, 만기일이 2020년 3월12일까지 10년간 연장되면서 올해 4월 이후에는 14센트까지 상승폭이 확대했으며, 특히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에도 10센트 수준을 유지했다고 뉴스는 덧붙임.
- 이 같은 북한채권 가격의 상승은 통일 시 남한의 북한채권 변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채권펀드인 프랭클린템플턴의 북한 채권 보



유 공개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뉴스는 전함.

● "러, 北에 곡물 5만t 지원 계획"(5/18, 인테르팍스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정보기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북한에 곡물 5만t을 지원하는 방안과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
- 통신은 러시아 외교 소식통을 인용, 미하일 프라드코프 대외정보국(SVR) 국장이 김정일 위원장과 인도적 지원, 경제 프로젝트, 북핵에 관한 회담을 했다고 전함.
- 이 외교 소식통은 남북한과 관련된 경제 프로젝트에는 "남북한 간 철도 연결과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해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 파이프라인, 송전선 설치 등이 포함 된다"고 말함.

● "독일NGO, 北에 쌀 200t 지원"(5/19, 미국의소리(VOA))

- 독일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쌀 200t을 지원했고 다음 달에도 북한에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
- VOA는 독일의 구호단체인 '갭 아나무르'가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150t,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50t의 쌀을 나눠주고 있으며 6월에도 200t 이상의 쌀과 콩을 북한에 추가 전달한다고 방송은 전함.
- 이 단체 벤트 고켄 대표는 VOA에 4월26일부터 5월5일까지 북한의 여러 병원과 학교, 고아원을 방문해 식량을 나눠줄 기관을 직접 골랐고 이 단체 직원이 분배 과정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힘.

● "北, WFP에 '5~7월 식량배급 중단' 전달"(5/19, 마이니치신문)

- 북한 당국이 4월께 평양 주재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에게 "5~7월 3개월간 식량배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9일 WFP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도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이 꺾이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된 만큼 이번 식량배급 중단 조치가 빈곤층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
- 북한은 하루에 주민 1인당 590g의 식량을 배급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해 배급량은 평균 376g에 그쳤다고 WFP 관계자는 전했으며, 특히 올해 4월에는 평균 190g으로 배급량이 줄었다고 신문은 밝힘.
- 지난 3월말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평안남도 북부에서는 이미 영양실조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사망자 중에는) 특히 7세 이하 아이나 60대 이상 노인이 많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함.

● 남북교역중단 1년..北, 中 의존도 심화(5/20, 연합뉴스)

-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대북 교역을 전면 중단한 5.24 조치가 오는 24일로 만 1년이 되면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 있으며 연합뉴스는 보도
-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신의주-단동(丹東) 두 도시를 잇는 신 압록강대교가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데 이어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양측이 합작하기로 한 압록강의 섬 황금평 개발과 훈춘(琿春)-라진항 도로보수 공사도 이달 말 북·중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잇따라 착공식을 열 것으로 알려지는 양국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단동(丹東)의 한 대북 무역상은 "중국 최대 화물 전용 부두인 산둥(山東)성 룡커우(龍口)항에만 올해 1분기에 북한산 무연탄 100만t이 들어왔다"며 "단동(丹東)과 다롄(大連) 등 북한과 인접한 항구의 수입량까지 합치면 올해 북한에서 수입한 무연탄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함.
  - 중국 해관이 밝힌 지난 1월 북한의 대중 수출 석탄 물량은 49만3천t인데 이 물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18배 급증했으며, 중국의 한 석탄 수입상은 "외화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남한과의 교역 중단 이후 유일한 판로인 중국에 국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 무역상들로서는 큰돈을 벌 기회"라고 전함.
  - 또한 원·부자재를 북한에 보내 가공한 뒤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남한 기업들의 의류 위탁가공이 전면 중단되면서 외화벌이에 타격을 받은 북한은 봉제공 등 노동력의 중국 송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미 단동에는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1천여 명의 북한 봉제공들이 들어와 일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중국은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의 단순 노동직 인력 유입을 엄격하게 통제했으나 최근 인건비가 급등한 데다 생산업체들이 인력난을 겪자 북한 노동자 유입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신문은 밝힘.

#### ■ 기타 (대내 경제)

- 黃南·北道, 平南·北道 등 전국 각지 농촌들에서 '본격적인 모내기' 시작(5/16, 중방)
- 박의춘 외무상, 5.16 駐北베트남 대사 '레 팡 바'와 담화(5/16, 중통)

#### 다. 사회·문화

##### ● "北 3만 사이버 병력..능력 CIA에 필적"(5/18, 폭스뉴스)

- 북한은 해킹 등 사이버전쟁을 펼칠 3만 명의 병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 능력은 CIA(중앙정보국)에 필적한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17일 보도
- 이 방송은 김정일이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현대전의 승리와 패배는 전자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수년전 언급한 이후 북한이 사이버전 능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같이 전함.
-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 웹사이트를 가장 빈번하게 접속하는 방문자들



가운데는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적되는 컴퓨터들이 있다고 이 방송은 전함.

- 폭스뉴스는 탈북자들을 인용, 북한이 3만 명에 이르는 전자전 특수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군의 핵심 엘리트들이 되고 있다고 소개
-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이 대학교의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해킹과 사이버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하는 비밀 학교에 보낸다고 했으며, 이들 비밀 학교 중 한 곳에 다니고 북한의 전자전사령부에서 일했던 한 탈북자는 북한의 자동화대학이 핵심이라면서 이곳에서 1년에 100~110명가량의 해커들이 배출된다고 뉴스는 전함.
- 폭스뉴스는 미국과 한국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및 사이버전) 능력은 CIA와 필적한다고 보도

● "北 휴대전화 가입자 50만 명 돌파"(5/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RFA에 따르면 북한의 유일한 이동통신 업체인 고려링크'를 통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은 3월말 현재 53만5천133명임.
- 작년 말까지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43만여 명이었고 이후 석 달 사이에 10만 명 넘게 늘어나는 등 가입자가 기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방송은 전함.
- RFA는 올해 1분기 북한 주민의 1인당 한 달 평균 통화시간은 4시간30분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시간11분보다는 41분 줄어들었다고 덧붙임.

● "北, 세계기상기구 국제회의 참가"(5/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기상수문국 대표단이 16일 열린 세계기상기구(WMO)의 국제회의에 참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
- 앞서 WMO 관계자들이 지난 3월 방북해 북한의 기상 설비와 예보 능력을 점검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자들의 이번 회의 참가를 계기로 WMO의 지원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되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평양서 FIFA 심판원 강습 열려(5/19, 조선중앙통신)

-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11일부터 15일까지 국제축구연맹(FIFA) 심판원 강습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 이번 강습은 이론과 실기로 나뉘어 열렸으며 축구경기에서 주심과 부심의 역할, 경기전술과 분석, 심판원의 체력훈련방법 등을 교육했으며, 또 16일부터 17일까지는 FIFA 심판감독관 강습도 열렸다고 중앙통신이 덧붙였다.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원림녹화사업 발전을 위한 '도시녹화계획' 등 추진(5/17, 중통)

## 2. 대외정세

### 가. 일반

- **美 "북-이란 협력, 과거부터 우려"(5/17,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6일 북한이 이란과 '미사일 기술' 협력을 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제출과 관련, 우려를 표시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이란간의 핵 미사일기술 공유는 우리가 이전에 제기했던 우려"라면서 "우리는 이런 우려를 과거에 제기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함.
- **이란, 北과 미사일기술 교환 의혹 부인(5/17, AFP통신; 로이터통신; 연합뉴스)**
  - 이란 정부는 17일 북한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정기적으로 교환해 왔다는 의혹을 부인함.
  - 라민 메흐만파라스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북한과의 미사일 기술 교환 주장은 조작된 것이고 선전전 도구일 뿐"이라며 "이란의 미사일 기술은 다른 나라의 지원이 필요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
  - 로이터통신이 지난 14일 입수한 유엔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이란은 금지된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을 고려항공과 이란항공의 정기 항공편을 통해 주고받은 의심이 있다는 지적함.
  - 다수의 외교관들은 익명을 전제로 이런 불법적 미사일 기술 교환이 중국을 경유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 보고서가 유엔의 승인을 얻지 않은 문서일 뿐 아니라 지금껏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조치를 옹호해왔다고 반박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中, 북한-이란 간 불법 거래 비호"(5/17, 르피가로)**
  - 프랑스의 르피가로 신문은 17일 북한과 이란 간 불법 무기 거래를 중국이 비호하고 있다고 보도
  - 르피가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된 기밀 보고서를 인용, 평양-테헤란 간 미사일 부품과 기술 교환이 베이징이라는 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전함.
  - 신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들이 불법으로 이란으로 수송되고 있는



것은 이를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있는 중국 당국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이로 인해 미국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말함.

- 르피가로는 이란은 북한의 오래된 고객이어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폭탄 제조기술을 넘어 플루토늄을 대체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분야의 기술이 이란으로 이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 이어 르피가로는 최근 들어 북한의 전통적인 무기판매망이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등 중동국가들의 민주화 사태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어 대(對) 이란 수출 루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안보리, 대북 제재 연례 보고서 채택 불발(5/1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불발됨.
- 연합뉴스에 의하면 유엔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북제재위 의장이 안보리에서 보고를 했고 보고서 채택 문제가 논의됐으나 중국 측이 자국 전문가가 서명하지 않은 보고서라는 이유로 채택에 반대했다"고 말함.
- 지난 13일 제출된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이 '군사적 용도를 위한 것'으로 안보리 결의 1718 및 1974호를 위배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에 대해 국제사회가 감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하면서,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북한이 그동안 UEP가 전력 생산을 위한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
-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국제 안전기준에도 맞지 않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일본 원자력 사고에 비쳐볼 때 북한 핵시설 안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함.
- 이 관계자는 "중국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은 미리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단 15개 안보리 회원국에 보고서가 회람이 된 만큼 추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스티븐스 "북미대화 준비됐으나 南北우선"(5/18, 연합뉴스)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과) 양자대화도 할 준비가 돼 있으나 일단은 남북관계 개선이 있기를 원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줄길 바란다"고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 이어 "9.19 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와 국제법 준수, 도발행위 금지를 위해 행동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임.





-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북미 정상회담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everything is possible)"면서 "비핵화 없이는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것보다 더 명료하게 말할 수 없으며 북한이 (비핵화의) 선택을 할 경우 모든 길이 열려 있음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거듭 촉구함.
- 그는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약속한다면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포함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이고 장애물이 많다"고 말함.
- 이어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원이자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국제사회 규범에 반하는 북한의 또 다른 도발에는 반드시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미국은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추가 도발이 (대화 재개) 분위기에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후퇴시킨다는 점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지적함.
- 그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은 식량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수요와 여타 국가와의 형평성, 식량배분의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는다"면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 ■ 기타 (대외 일반)

- '상해협조기구(SCO, 中·러 등 6개국) 성원국간 "군사·경제 등 각 분야의 호상협조강화(군대총참모장회의, 법집행안전기관 훈련 등) 및 국제적 지위와 역할 증대" 주장(5/16, 중통·노동신문)

#### 나. 6자회담(북핵)

##### ● 中 "관련국들 조치해 6자회담 재개해야"(5/17,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17일 "관련국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을 지지하며 유관 각 측과 밀접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연합뉴스는 보도
- 이어 최근 발표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란과 미사일 기술 협력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음.



### 3. 대남정세

#### ● 통일부 "5.24이후 개성공단 현상유지 했다"(5/18,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5.24조치에도 개성공단은 최소한 현상유지를 한다는 목표를 가졌는데, 생각한 대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오는 24일 5.24조치 1주년을 앞두고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 3월 개성공단 월 기준 생산액이 3천472만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함.
- 이는 5.24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해 남측 기업관계자의 체류인원 제한과 신규 및 추가 투자가 제한됐지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고 풀이된 다며 연합뉴스는 전함.
- 이어 실제 개성공단은 5.24조치에도 성장세를 이어가 지난해 교역규모는 14억4천285만 달러로 전년의 9억4천55만 달러에 비해 53.4% 급증했다. 개성공단의 생산액 역시 2억5천647만 달러에서 3억2천332만 달러로 26.1% 늘어났다고 뉴스는 전함.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 시점인 지난해 5월 4만3천448명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4만6천302명으로 증가했으나 현재 북측 근로자는 입주기업의 수요보다는 2만5천 명 정도가 모자라는 수준이라고 통일부는 밝힘.
- 통일부는 섬유봉제·의류 제조업체인 (주)오륜무역이 최근 시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가동기업 수가 늘어났다고 밝혔으며, 오륜무역은 5.24조치 이전에 공장시설 등 투자를 완료했지만, 북측 근로자 공급 지연 등으로 생산 활동이 늦어져 5.24조치의 신규·추가투자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 .

#### ● "영관급 장교 4명 北에 납치됐다" 법정 증언(5/20, 연합뉴스)

- 현역 영관급 장교 4명이 10여 년 전에 북한에 납치됐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북한 전문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2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흑금성' 박모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북한전문기자 정모 씨는 19일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중령이 1999년 중국 국경에서 납치되고 이모 대령이 북한에 체포됐으며 또 다른 이모 대령과 박모 대령이 북한에서 납치·체포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함.
- 그는 당시 소속 신문사에서 이 내용의 취재가 중단됐는데 이는 보도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고 뉴스는 전함.
- 박씨 측은 납치된 군인을 통해 북한이 2000년대 초 이미 작전계획 5027을 입수했고 북한이 2004년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주장
- 박씨는 2003년 3월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 까지 작계 5027과 군사 교범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

- 정씨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증언한 것으로 알려진) 대부분 내용은 변호인이 얘기한 것이고 나는 당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을 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함.

■ 기타 (대남)

- '상해협조기구'(SCO, 中·러 등 6개국) 성원국간 "군사·경제 등 각 분야의 호상협조강화(군대총참모장회의, 법집행안전기관 훈련 등) 및 국제적 지위와 역할 증대" 주장(5/16, 중통·노동신문)李대통령의 訪獨'對北발언'은 "체제대결, 북침전쟁 시사"라고 주장 및 "후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持續비난 言動(5/16, 중통·노동신문·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보즈워스 "한국과 대북 '다음단계 조치' 협의"(5/16)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6일 오후 9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음. 보즈워스 대표는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와 북한과 관련한 다음 단계의 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방문 목적을 밝혔음. 그는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에 "내일 말 하겠다"며 답변을 피했음.
- 보즈워스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해 6자회담 3단계 재개 방안과 대북 식량지원 문제, 북한 우리나라농축프로그램(UF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약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보즈워스 대표는 또 현인택 통일부 장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도 면담한 뒤 18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다.
- 이번 방한에는 성 김 6자회담 특사와 시드니 사일러(Sydney A. Seiler)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 등이 동행했음.

##### ● 中, 안보리 대북 제재 보고서 채택 반대(5/18)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불발됐음. 유엔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리에서 보고서 채택 문제가 논의됐으나 중국 측이 자국 전문가가 서명하지 않은 보고서라는 이유로 채택에 반대했다"고 말했음.
-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안보리가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일정기간 반대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침묵 절차'(silence procedure)를 깨고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대북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호세 필리페 모라에스 카브랄 포르투갈 대사는 보고서의 진술 내용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그러나 안보리는 이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중국의 리바오동 유엔대사는 "현재 보고서를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음.
- 지난 13일 제출된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UFP)이 '군사적 용도를 위한 것'으로 안보리 결의 1718 및 1974호를 위배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우리나라 농축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에 대해 국제사회가 감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북한이 그동안 UEP가 전력 생산을 위한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것임.
- 특히 보고서는 북한 영변의 핵시설 안전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국제 안전기준에도 맞지 않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비쳐볼 때 북한 핵시설 안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이 중동과 남아시아국가들에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 기술들을 불법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 고려항공과 이란항공 정기편을 통해 북한과 이란 간에 금수 무기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웃하고 있는 제 3국'을 통해 탄도 미사일 부품들이 선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외교관들은 이 '제 3국'이 중국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 보고서는 또 북한이 봉동리 동창동에 두 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 건설을 완료했거나 거의 완료단계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동창동에 건설되는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기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리단에 있는 발사기지보다 약 5배 큰 규모라고 덧붙였다.
  - 이 관계자는 "중국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은 미리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단 15개 안보리 회원국에 보고서가 회람이 된 만큼 추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에도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는 중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으나 11월 열린 회의에서 보고서 공개가 합의된 바 있음.
  -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당초 12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었으나 중국 전문가가 서명을 거부하면서 24시간 연기돼 13일 제출됐다. 유엔 외교관들은 중국 전문가가 본국으로 부터 서명하지 말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전했다.
  -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 연례보고서를 '소위 유엔 내부 자료'로 지칭하면서, "이는 안보리와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격하한 바 있고, 이란 외교부도 보고서의 북한-이란 간 탄도미사일 거래와 관련해 "날조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 ● 美, 안보리 '北보고서' 공개 中압박(5/18)

- 미국은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과 관련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북한 관련 보고서와 관련, "제재위원회의 발견 사안과 권고 사안을 다른 국가들이 알도록 그 보고서를 빨리 공개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 중국은 북한의 우리농축축프로그램(UEP)이 군사적 용도를 위한 것이며, 북한과 이란이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정기적으로 교환해 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음.

- 토너 부대변인은 아직 이 보고서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현 시점에서 내용에 대해 코멘트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음. 그는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외국에 미사일 관련 기술을 공급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고 거듭 우려를 표시했음.

### ● 스티븐스 "북미대화 준비됐으나 南北우선"(5/18)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과) 양자대화도 할 준비가 돼 있으나 일단은 남북관계 개선이 있기를 원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음.
-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스티븐스 대사는 이어 "현재는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상이 되고 현실적이고 긍정적 여건을 만들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단계"라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으나 북한은 건설적이고 실질적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진실성 있고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9.19 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와 국제법 준수, 도발행위 금지를 위해 행동하길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북미 정상회담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everything is possible)"면서 "비핵화 없이는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것보다 더 명료하게 말할 수 없으며 북한이 (비핵화의) 선택을 할 경우 모든 길이 열려 있음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거듭 촉구했음.
- 그는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약속한다면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를 포함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이고 장애물이 많다"고 말했음.
-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원이자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국제사회 규범에 반하는 북한의 또 다른 도발에는 반드시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미국은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추가 도발이 (대화 재개) 분위기에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후퇴시킨다는 점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감안했을 때 북한이 남북관



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개선시킬 지는 남북한 각각이 고심해봐야 할 것이며 중국 역시 이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음.

- 그는 북한의 비핵화 합의 시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데 대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평양에서 오는 답이 전망이 밝지 않다"고 내다봤음.

#### ● 北 외무상 "한반도 비핵화 준비 돼 있다"(5/18)

-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은 북한이 지난 2005년의 한반도비핵화 공동성명에 입각해 한반도 전체에서 비핵화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다고 17일 밝혔음. 박 외무상은 이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우리는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해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 한다는 공동성명 정신을 존중 한다"면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수령의 유지였으며 북조선이 나아가야할 불변의 과정"이라고 평가했음.
- 박 외무상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친선 및 협력관계는 긍정적이며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두 나라 국민들은 우호와 협력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 박 외무상은 이어 "두 나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상호간에 돕는 숭고한 협력정신을 보여줬다"면서 "두 나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 靑 "김정일 초청 진의, 北에 전달"(5/18)

- 정부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과 관련, 북한과 실무 당국자 간 접촉을 갖고 제안의 진의를 설명한 것으로 18일 전해졌음.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의가 북측에 전달됐다"면서 "향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 남북 간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접촉 장소는 북한의 공관이 있는 중국 베이징(北京) 또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정부 당국은 이번 남북 간 실무 접촉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시화하면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해 남북 간 비핵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상부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핵안보정상회의가 10개월 이상 남아있는 만큼 베를린 제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베를린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 ● <김정일訪中> 6자회담 재개 탄력 만나(5/20)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일 중국을 방문함에 따라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됨. 9개월 만에 이뤄진 김 위원장의 방중은 교착상태인 북핵 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임.
- 일단 6자회담 재개 흐름이 탄력 받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임. 북한이 지난달 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이후 침묵을 깨고 외교적 행보에 나선 것이기 때문임. 중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비핵화 회담→북미대화→6자회담'의 3단계 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첫 단추인 '남북 비핵화 회담'부터 난항을 겪고 있음.
- 한국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남북 비핵화 회담'에 답해오면 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북한은 중국과 '3단계 프로세스'에 합의한 4월 중순 이후 한 달 넘게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임. 게다가 이달 초 예상됐던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북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중이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최대 현안인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면담 여부가 주목됨. 최고 지도자 사이에서 6자회담 재개 방식을 둘러싸고 큰 틀에서 방향이 설정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임.
- 우선 김 위원장이 '남북 비핵화 회담'에 적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음.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약속하는 대신 북한에 비핵화 회담에 적극 나오라고 촉구하고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나아가 김 위원장이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상주 허용 등 전향적 조치를 꺼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한국과 미국 등이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에 호응하는 차원임.
- 이번 방중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지원 결정을 앞두고 이뤄진 점도 눈여겨봐야 함. 미국은 내주로 예상되는 로버트 킹 인권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음.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고 원활한 식량지원을 이끌어내려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또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도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재역할을 재개할 것으로 점쳐짐. 외교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핵문제 논의가 진전되고 미국의 대북식량 지원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경우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내다봤음.
- 다만 대화 국면이 속도를 내려면 '천안함·연평도 문턱'을 넘어야 함.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6자회담 재개 흐름에 급격한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반면 한국 정부도 대화국면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북핵 문제의 연계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좀 더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 북한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유엔 안보리 논의를 놓고 북·





중, 한·미 사이에 벌어지는 기싸움도 또 다른 변수임.

나. 미·북 관계

● "美 대북식량 장기간·소량 지원할 것"(5/18)

- 미국이 대북식량지원을 하더라도 소량을 장기간에 나눠서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전했다. 이 방송은 북수의 미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식량계획(WFP)이 추산한 식량부족분 43만톤은 미화 3억 달러 규모로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의 동의가 어렵다"며 "한꺼번에 많은 식량을 보내기보다는 조금씩 나눠 지원하면서 북한이 분배 감시에 협조하지 않으면 식량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더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식량이 소규모가 될지라도 일단 지원을 결정하면 그동안 보류돼온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재개되면서 식량부족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이 소식통은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은 지원재개를 위한 마지막 통과의례"라며 "이번에 방북하는 킹 특사와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관계자들이 단 며칠 동안 북한을 둘러보는 것으로 민간 구호단체와 WFP의 식량수요조사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그러나 미국 정부 어디에서도 한국정부의 양해가 없는 상태에서 대북식량지원을 서두르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며 식량지원재개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음.
- 이와 달리 워싱턴에 있는 한 민간단체의 관계자는 "킹 특사가 이번 방문에서 북한으로부터 분배감시에 대한 만족할만한 수준의 답변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미국으로서는 인도적 지원을 미룰 명분이 더는 없을 것"이라며 "6월 초쯤 대북식량지원 재개를 전격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음.

● 美, 킹 특사 방북검토 공식 확인(5/19)

- 미국 국무부는 18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음.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식량사정에 대한) 우리 자체의 평가를 하기 위해 킹 특사를 그 지역이나 북한에 보내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음.
- 그는 미국 자체 평가가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식량난 관련 사안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식량난 원인과 관련, "북한이 그 상황의 상당부분에 책임이 있다"면서 "나쁜 정책들과 자원의 잘못된 분배 및 관리에 의해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 그는 한미 양국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식량지원 필요성 문제와 관련, 한국과 강한 일치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해소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 한다"고 말했다.

#### ● "北-美 적십자간 이산가족 상봉 논의"(5/20)

- 미국 적십자사가 국무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북한 조선적십자화와 재미 한인의 이산가족상봉문제를 논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전했다.
- 이차희 미국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이 방송에 "마크 커크 공화당 상원의원이 3월30일 국무부에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미국 적십자사가 지난달 초 북한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북미 적십자 간 접촉이 몇 차례나 이뤄졌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 방송에 따르면 커크 상원의원은 19일 게일 맥거번 미국 적십자 총재에게 이산가족상봉 주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사는 가족들과 상봉하는 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반응을 자세히 알려 달라"고 요청했음.
- 커크 상원의원은 또 "적십자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이산가족상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성원을 보낸다"고 밝혀 조만간 방북할 예정인 킹 특사가 북한과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음.

#### 다. 중·북 관계

#### ● "北 장성택, 5월말 中 동북지역 순회 방문"(5/16)

-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이 황금평 및 라선 특구 개발공사 착공식 참석과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말 중국 동북지역을 순회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16일 단둥(丹東)과 창춘(長春) 소식통들에 따르면 장 부장은 이달 28일 중국을 방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접해 있는 황금평의 입가공업단지 개발공사 착공식에 참석한 뒤 지린(吉林)성 창춘(長春)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임. 장 부장은 이어 라선특구로 건너가 오는 30일 열리는 훈춘(琿春)-라진항 도로보수 공사 착공식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황금평 개발 착공식에는 중국 측에서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참석해 장 부장과 황금평 입대 협정을 정식 체결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창춘에서는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장 부장을 만나 라선특구 개발에 필요한 시멘트 공장 건설과 라선특구 전력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 중국은 라선특구 전력 공급과 관련, 훈춘에 건설될 60만mw급 화력발전소에서 송전하는 방법과 옛 소련이 건설했으나 남아 가동이 중단된 선봉 화



- 력 발전소 설비를 개조, 북한이 전력을 자체 생산토록 방안을 놓고 북한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라선특구에서 열리는 훈춘-라진 도로보수 공사 착공식에서는 장 부장을 비롯한 북-중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라진항 부두 확장 공사와 식품공장 건설 등 8개 항목의 북-중 합작사업 착공식도 함께 열릴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미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들이 라선특구 투자를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 연변의 소식통들은 조정호 라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라선특구 착공식과 장 부장의 영접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4일 연변을 방문했다고 알렸다.
  - 장 부장은 외자 유치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를 이끌며 황금평과 라선특구 합작개발 등 중국과의 협력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훈춘-라진 도로보수 이달 말 착공"〈中매체〉(5/18)
- 이달 30일 북한 라선특구에서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과 중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훈춘(珲春)에서 북한 라진항을 잇는 도로 보수 공사 착공식이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변일보가 이달 말 이 공사가 시작된다고 18일 보도했다.
  - 신문은 훈춘시 통상구 판공실을 인용, 시공 설계와 현장 측량 등 도로보수 착공을 위한 준비 작업이 완료됐으며 이달 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라선에는 공사를 지도·감독할 건설 본부가 차려졌으며 공사에 투입될 인력과 차량, 설비 등도 모두 갖춰졌다. 북한과 중국은 이 도로보수 공사를 올해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에서 북한 원정리와 청계, 선봉을 거쳐 라진항과 연결되는 총연장 53.5km의 이 도로 보수 공사에는 1억5천만 위안(250억 원)이 투입돼 비포장 구간의 포장과 선형 개선, 16개의 교량 보수, 배수구 정비가 이뤄질. 완공되면 평균 시속 40km로 주행할 수 있게 됨. 이 도로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전액은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중국이 부담함. 이 도로는 선봉-라진까지 17km 구간은 포장이 돼 있지만 원정리-선봉 간 36.5km는 비포장도로여서 물자 운송이 더뎠음.
  - 신문은 이 도로 보수 공사가 북·중이 합작하기로 한 라선특구 개발을 촉진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 경제협작과 지린(吉林)성의 '지에강추하이(借港出海, 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함) 전략'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 소식통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5/20)
-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개월 만에 다시 방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소식통은 20일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 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투면에 이어 도착한) 무단장(牡丹江) 시 숙소에서 머무는 방중단 인원 70여 명의 공식 수행명단에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 부위원장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김정은 부위원장이 동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정부의 다른 당국자도 "전용기차가 국경을 넘어간 것은 확인했으나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확인한 적은 없다"면서 "김정은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중을 기해야할 입장"이라고 전했다.
  - 이런 김정일 부자의 방중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확인을 거부하고 있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는 이날 새벽 투먼(圖門)에 도착한 뒤 오전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牡丹江)으로 도착해 상당 시간을 보냈으며, 다른 행선지로 향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이날 새벽 투먼 일대에 경비가 대폭 강화돼 북한 고위인사의 방중설이 나돈 가운데 김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는 북한의 남양과 투먼을 잇는 다리를 통과했음. 이에 따라 이 다리 주변을 포함해 시내 전역에는 공안들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음.
  - 특별열차는 투먼에서 잠시 머문 후 이동해 이날 오전 무단장에 도착해 무단장의 최고급 호텔인 홀리데이인(假日)호텔에 일단 여장을 풀었음. 김 위원장 일행은 이어 고(故) 김일성 주석을 비롯해 항일 공동투쟁을 했던 동북항일연군 기념탑이 있는 무단장 베이산(北山)공원을 방문하고서 부근의 징보후(鏡泊湖 경박호)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음.
  - 아울러 북한이 지난해 9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 올라 사실상 2인자 자리를 굳힌 김정은이 권력승계 공고화 차원에서 이번에 부친의 방중에 동행했을 것으로 관측되나, 중국 측이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일訪中> 후계 보장에 방점 찍힌 듯(5/20)
-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일 새벽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되풀이된 방중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김 위원장 방중은 2000년과 2001년, 2004년, 2006년, 2010년 5월과 8월에 이어 이번이 일곱 번째임. 더욱이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이번 방문이 눈에 띈다는 지적임.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 큰 관심을 보내고 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관측을 내놓고 있으나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과시하고 중국으로부터 이를 보장받으려는 의도가 배어 있다는 분석이 유력해 보임. 김 위원장 일행이 투먼(圖門)을 경유해 무단장(牡丹江)으로 직행해 선친인 고(故) 김일성 주석의 항일 유적지가 있는 베이산(北山) 공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 점도 그런 의도를 명백히 한다는 지적임. 항일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룬 혁명정신을 받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인 셈임.
  -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8월 방중에서도 같은 장소를 찾았고 9개월 만에 다시 방문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김 위원장 방중이 부친의 혁명정신 계승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옴. 김 위원장의 삼남인 김정





- 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동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 김정일 사후 국방위원회를 대체할 권력기구로 자리매김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는 사실상 북한의 2인자 자리를 대내적으로 공고히 한 김정은이 부친인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조부의 혁명 유적지를 찾아 3대 째 권력승계의 의지를 다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정은이 이번에 동행했다면 미래의 카운트파트 격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과의 회동 가능성도 점쳐짐.
  -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포함한 수뇌부와 회동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런 자리를 통해 김정은이 중국 수뇌부와 자연스런 교류의 자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실 중국은 저우융캉(周永康) 상무위원이 지난해 10월,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같은 해 12월 초, 멩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지난 2월 13~15일 방북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중국 지도부의 김정은 방중 요청 의지를 전한 바 있어 이번에 김정은이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임.
  - 아울러 멩 부장은 방중 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돼 조선혁명의 계승 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데 대해 열렬히 축하 한다"면서 북한의 권력 승계를 공식화하는 발언을 했던 점으로 미뤄,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방중에서 이보다 '강화된' 후계보장을 받으려 할 것으로 관측됨.
  - 일각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통해 이전보다 진전된 개혁개방 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지난해 8월의 방중 행로를 역순으로 밟아 투먼-무단장-하얼빈 구간에서는 권력승계 의지와 정당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그에 이어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으로 이동해 이른바 '창·지·투(長吉圖)계획'의 핵심지역을 재차 찾는 '경제 강조'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9개월 만에 다시 같은 동선을 따라 중국과 경협의지를 비침으로써 개방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려 한다는 얘기임.
  - 또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중의 시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후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됐고 올 들어 북한이 대화 공세를 벌이고 있으나 비핵화 의지 등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교착을 못 벗어난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이 9개월 만에 방중 한 게 예사롭지 않다는 것임.
  - 다시 말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거듭된 북한 비핵화 제안에 북한이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 속에서 이뤄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은 꼭 막힌 남북 관계를 우회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중 관계에 보다 무게를 싣겠다는 의도라는 것임.
  - 아울러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에 춘궁기가 겹치면서 수백 만 명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부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 <김정일訪中> "北 장성택, 김정일 방중에 동행"(5/21)

-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이 신문은 장 부위원장이 외자 도입의 권한을 가진 만큼 이번에 북중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교섭이나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음.
- 중국 측에서는 지린(吉林)성과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서기가 동행했음.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나진항 개발이나 기업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층 북한으로 경제 진출을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음.

### ● <김정일訪中> 김정일 中 남북 종단 행보(5/22)

- 방중 사흘째인 22일 무려 22시간 가까이 행방이 묘연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행방이 드러났음. 21일 오후 2시 20분(한국시간 오후 3시 20분)께 창춘(長春)역을 떠나 같은 날 오후 7시께 선양(瀋陽)역을 무정차 통과했던 특별열차가 행방이 묘연했다가 남행중인 게 포착된 것임. 특별열차의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6시)께에는 양저우역에 도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이 특별열차에는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더불어 성광주(盛光祖) 철도부장이 수행하면서 특별열차의 행로를 '우선' 확보하고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속 70km 이상 달리지 않는 '저속' 운행 중이라는 전언임. 김 위원장이 방중시기로 주말을 택한 게 이처럼 투면-무단장-하얼빈-장춘-선양-톈진(天津)-양저우라는 '종단' 행보를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음.
- 사실 김정일 위원장이 22시간이 넘게 '잠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돌았음. 그 가운데 일단 서행 또는 휴식할 가능성이 유력했음. 신장결석을 포함해 여러 병증이 있는 김 위원장이 '무숙박' 사흘 강행군을 한 탓에 휴식을 취하는 등 체력조절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였음.
- 그러나 김 위원장은 창춘을 출발해 톈진을 거쳐 상하이(上海) 부근 양저우(揚州)까지 내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이런 관측을 비웃었음. 이런 강행군에는 대내외의 김정일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옴.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최근 흘러나오는 김 위원장의 건강 호전설과도 맥이 닿는 모습임.
- 특히 양저우가 상하이, 난징(南京)과 인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차후 행보가 개혁개방의 신천지인 상하이 등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 김 위원장의 남북 종단의 반경은 더 커질 수도 있어 보임. 그러나 그동안 여섯 차례 방중에서 그 기간이 통상 4박5일, 길면 5박6일 이었던 점에 비춰 김 위원장의 이런 '남행'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임.
- 이처럼 김 위원장의 남행이 확인되면서 어디에서 언제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지에 관심이 모아짐. 통상 김 위원장의 방중은 중국 최고지도자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양국 간 정상회담은 방중 필수행사로 여겨짐.

### ● <김정일訪中> 실제 드러낸 김정일 방중 목적(5/22)

-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개월 만에 방중한 목적이 공개됐음.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입을 통해서임. 일본 도쿄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원 총리는 "중국의 발전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북한)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했다"고 밝혔음. 원 총리는 또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한 지도자들의 방중에 대해 원대한 안목을 갖고 전략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중국은 유의하고 있다"고도 했음.
- 이번이 김 위원장의 일곱 번째 방중이지만, 방중 기간에, 그 것도 중국 수뇌부가 방중 사실을 공개하면서 초청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임. 원 총리의 얘기는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의 발전상을 북한이 벤치마킹하도록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액면 그대로 보면 이런 중국 수뇌부의 초청에 김 위원장이 응한 것은 북한 역시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임. 다시 말해 이것이 바로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의 목적인 셈임.
- 사실 이번 방중에서도 김 위원장은 이미 투먼-무단장-하얼빈-장춘-선양 등의 동북3성 거점을 모두 방문했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과 중국 간에 논의가 이뤄지는 장춘-지린-투먼을 거점으로 한 이른바 '창·지·투(長吉圖) 계획'과 관련해 모종의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김 위원장이 이번에 동북3성 거점을 모두 방문해 북중 경협에 실질적인 계약체결로 이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어 김 위원장이 다시 남부 개혁개방의 신천지를 둘러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임.
- 양자우를 간다면 그 부근의 난징(南京)과 상하이 방문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개혁개방의 '청사진'을 구체화할 수도 있다는 것임.
- 실제 원 총리의 도쿄 발언에는 중국은 그동안 6차례의 김정일 위원장 방중을 통해 개혁개방을 유도했고, 이번에도 그런 차원이라는데 강조점이 있음. 그러면서도 뭔가 '기대'도 깔려 있어 보임. 지난해 5월과 8월에 방중 했던 김 위원장이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방중 초청에 응한 것은 뭔가 '결단을 앞둔' 행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 라. 일·북 관계

#### ● "중국 주재 日 공관, 탈북자 보호 중단"(5/18)

- 중국에 주재하는 일본 공관이 탈북자 보호를 사실상 중단했다고 요미우



- 리신문이 18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일본이 중국 선양의 일본총영사관에서 보호하고 있던 탈북자 5명을 지난달과 이달 초에 걸쳐 중국의 목인 하에 일본으로 입국시키기 전 탈북자를 보호하지 말라는 중국 측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고 전했다.
- 중국 측은 '앞으로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약속서를 문서로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일본 측이 '앞으로 유의 하겠다'고 약속하자 중국 측은 지난 3월 선양 일본총영사관이 보호하고 있던 탈북자 5명의 출국을 허용했음.
  - 일본 측은 중국이 선양 일본총영사관의 탈북자 출국을 허용했던 지난 3월 다른 탈북자가 일본 공관을 통해 보호를 요청했으나 "지금은 어렵다"며 거절했음. 앞으로도 탈북자가 일본 국적을 가진 경우나 중국 측의 경비를 따돌리고 공관으로 진입하는 경우 등의 특수한 사례 외에는 탈북자 보호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일본 공관들은 지난 2002년 선양 주재 일본총영사관에 탈북자들이 집단으로 진입한 뒤 중국 측의 경비가 강화되자 외부에서 탈북자를 접촉해 공관에 데려와 보호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택했고 중국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항의해왔음.
  - 현재까지 외국 주재 일본 공관을 통해 일본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100여명에 달하고 있음.

#### ● 日언론, 김정일 訪中 의도에 촉각(5/20)

- 일본 언론은 20일 한국 정부 소식통과 언론을 인용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가 이를 다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으로 수정하는 등 혼선을 빚었음.
- NHK방송은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당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설명해 국내외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으나 이후 이 고위관계자는 중국 방문에 나선 인사는 김 국방위원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 교도통신은 중국과 일본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 열차를 이용해 중국에 입국한 것이 명백해졌다"면서 "김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의 동행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이 통신은 도쿄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김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중·북 관계의 긴밀성을 일본과 한국에 부각시켜 압력에 비중을 뒀던 양국의 대북 정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후지TV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 모란강 호텔에서의 목격 정보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등으로 미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인사는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지지통신은 김정일의 중국 방문으로 중국과 북한이 경제 협력 등 대형 합의에 도달할 것인가와 핵 문제에 대해 김 국방위원장이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가 초점이라면서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지원



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 日 언론 "김정일 또 방중..중국 의존 깊어져"(5/21)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일본 언론은 '북한의 중국 의존이 깊어졌다는 증거'로 풀이했음. 21일자 아사히신문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의도에 대해 "자신의 건강 상태가 회복됐다는 것을 국내외에 어필하고 식량 원조를 늘려달라고 (중국에) 부탁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북중 관계자의 분석을 전했다. 북중 간 교역량이 북한 전체 무역액의 80%를 넘는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더 악화했다는 점과 이번 방중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임.
- 아사히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두 차례 방중 시에도 중국에 대규모 식량·경제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여름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연계가 강한 중국 동북 지방부터 방문한 점에도 주목했음. 이달 말 압록강 황금평 개발사업 조인식이 예정돼 있고, 중국이 이번 사업을 '새로운 북중 관계의 시금석'으로 보고 중시한다는 점에서 중국 측도 김 위원장의 방중을 환영했으리라는 것임.
- 마이니치신문은 김 위원장이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점을 주목했음.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북 압력'을 요구하는 시점에 맞춰 방문함으로써 중국의 태도를 누그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임.
- 산케이신문은 김 위원장이 아들 김정은을 중국에 혼자 보내는 대신 자신이 직접 나선 데 대해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안정되자 당분간 후계자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전면에 나서는 외교방침으로 돌아간 것 아니겠느냐"는 한국 전문가의 분석을 신기도 했음.

#### 라. 러·북 관계

##### ● 김정일, 러 프라드코프 대외정보국장 접견(5/18)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미하일 프라드코프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의 대외정보국(SVR)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음. 러시아의 대외정보국은 옛 소련 KGB(국가안보위원회)의 후신으로 대외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임.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대표단 일행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셨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또 중앙통신은 "프라드코프 단장이 김정일 동지와 김정은 동지께 선물을 드렸다"고 전했다. 해외 인사가 방북할 때는 늘 김 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하지만 후계자 김정은에게도 선물을 줬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지난 2월 명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 방문 당시와 이번뿐임.
- 접견과 이후 열린 만찬에는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동석했음.





● "러, 北에 곡물 5만t 지원 계획"(5/19)

-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정보기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북한에 곡물 5만t을 지원하는 방안과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음. 통신은 러시아 외교 소식통을 인용, 미하일 프라드코프 대외정보국(SVR) 국장이 김정일 위원장과 인도적 지원, 경제 프로젝트, 북핵에 관한 회담을 했다고 전했다.
- 이 외교 소식통은 남북한과 관련된 경제 프로젝트에는 "남북한 간 철도 연결과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해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 파이프라인, 송전선 설치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음.
- 이날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7일 프라드코프 국장을 접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곡물 5만t 지원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에 관한 논평을 거부했으며 SVR도 18일 늦게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음. SVR은 옛 소련 KGB(국가안보위원회)의 후신으로 대외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프라드코프 현 국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시절 총리를 역임했음.

바. 기 타

● "北, WFP에 '5~7월 식량배급 중단' 전달"(5/19)

- 북한 당국이 4월께 평양 주재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에게 "5~7월 3개월간 식량배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9일 WFP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도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이 퍼지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된 만큼 이번 식량배급 중단 조치가 빈곤층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음.
- 북한은 하루에 주민 1인당 590g의 식량을 배급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해 배급량은 평균 376g에 그쳤다고 WFP 관계자는 전했다. 올해 4월에는 평균 190g으로 배급량이 줄었음. 육체노동을 하는 성인의 식량 필요량은 하루 평균 700g임.
- 지난 3월말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평안남도 북부에서는 이미 영양 실조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사망자 중에는) 특히 7세 이하 아이나 60대 이상 노인이 많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WFP 北사무소장 "北 분배감시 이행 약속"(5/19)

- 클라우디아 본 로엘 세계식량계획(WFP) 북한사무소장은 19일 "북한과 새로운 모니터링(분배감시)조건이 담긴 동의서를 체결했고 북한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WFP는 위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 로엘 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주최로 열린 '진보와 보수, 대북식량지원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WFP는 6개 현





- 장사무소에 최대 59명의 상주지원을 두고 군 단위까지 지원식량의 움직임을 감시할 것"이라며 "항만, 학교, 가정 등 WFP가 지원하는 모든 시설에 직원의 접근이 가능하고 도시뿐 아니라 지방의 시장을 방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8월부터 북한에 체류해온 로엘 소장은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 "혹한으로 작물생장이 늦어져 겨울에 수확할 작물을 심기 위해 아직 텃밭의 작물들을 수확하지 못하고 모두 잘라 버려야하고 저장고에 있던 씨감자도 못쓰게 됐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식량 생산량과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줄면서 6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노출돼 있다"며 "90년대 말부터 이후 매해 평균 100만 명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혹한, 국제사회의 지원 중단 등 다발적인 '쇼크'(shock)로 인해 북한 식량상황이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 또 지난 3월말 발표한 북한 식량실태보고서에 대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유례없는 접근성을 허가받아 일반 가정, 시장을 비롯한 식량 부족·영양지역을 둘러보고 작성한 포괄적인 보고서"라며 "단순한 스냅샷이 아닌 15년에 걸친 WFP의 경험과 주변 국가의 정보를 취합한 집합체"라며 자신감을 표시했다.
  - 이에 대해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을 도우려는 WFP의 진정성은 이해하지만 대부분 서양인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북한에 속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식량사정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한다"고 주장했다.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올해 식량사정이 특별히 나쁘지는 않지만 식량부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지금쯤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특히 비료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수확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한미 "킹 특사 방북" 이후 대북 쌀 지원 결정(5/17)

- 미국은 17일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이끄는 대북식량평가단의 방북결과를 보고 대북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국과 의견을 모았음. 한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과 오찬을 함께 하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사람을 보낼 수 있고 그 평가에 기초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양국은 이 과정에서 긴밀히 협



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이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팀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도 이것이 유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평가단 방북은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음. 그는 또 "미국 평가단이 북한에 가게 되면 식량지원의 모니터링 조건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예상 한다"면서 "한미 간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조건은 없지만 미국은 종래에 적용된 조건들을 개선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음. 그는 킹 특사가 북한에서 인권 등의 다른 현안을 북측과 논의할 가능성을 두고는 "확실하지 않지만 주임무는 식량문제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무가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대북식량 지원 여부에 대해선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있다. 대북 '5.24 조치'도 있고 다른 여건이 있다"며 부정적으로 말했음.
-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해 "킹 특사가 북한에서 돌아오고 나면 미국 정부의 최종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된다"면서 "다만 킹 특사가 북한에 가는 것 자체가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음.
- 한미 양국은 또 이날 회담을 통해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위법성을 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음. 정부 고위당국자는 "안보리만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UEP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기 전에는 생산적인 회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 **당정, 한미FTA 6월 외통위 처리키로(5/20)**

-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이의가 없다"면서 "6월 국회에서 외통위 처리를 전제로 상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음.
- 이 관계자는 "그다음에 미국 의회가 어떻게 할지 미국의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나라 쪽의 처리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음. 이는 일단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통과를 시켜놓고 국회 본회의의 최종 의결 시기는 미국 의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임.

#### ● **"北 태권도시범단 6월 미국 공연"(5/21)**

- 북한의 태권도시범단이 내달 11일부터 미국의 세 도시를 돌며 태권도를 선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전했다. RFA에 따르면 배능만 단장을 포함해 17명으로 이뤄진 조선 태권도시범단이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 보스턴과 뉴욕, 필라델피아에서 시범 공연을 함. 시범



단은 2007년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해 미국 중·서부의 5개 도시에서 다양한 격파와 호신술 등을 선보였으며 당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공연은 CBS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음.

● **한·미, 고엽제 매물 공동조사 합의(5/22)**

- 한국과 미국 정부는 경북 왜관지역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물문제의 신속하고 투명한 해결을 위해 한미 공동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음. 또 현지 주민대표와 환경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23일 중 문제의 기지인 캠프 캐럴 내부에 들어가 현장점검 등의 조사를 하는데도 의견을 모았음.
-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은 22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고엽제 매물 관련 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뒤 이같이 밝혔음. 그는 "우리는 물론 미국 측도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인식, 우리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했다"며 "미국 측은 캠프 캐럴 기지 내 환경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우리와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 양국 간 협의는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존 존슨 미8군 사령관 사이에서 이뤄졌음. 앞서 21일에는 국방부와 환경부, 그리고 미8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캠프 캐럴을 답사했음.
- 육 차장은 "공동조사 기간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은 조속히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 공동조사단이 구성되면 캠프 캐럴 내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은 동두천 등 다른 미군기지의 불법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캠프 캐럴에 대해서만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불법 폐기 등 문제 제기 내용의) 신빙성에 달렸다"고 말했음. 이와 관련, 현지 주민대표와 환경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은 23일 캠프 캐럴을 방문, 기지 내 오염 상황 파악 및 매물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합의가 이뤄졌음.
- 이와 함께 미국은 그동안 자체 모니터링 해 온 캠프 캐럴 기지 내 고엽제 관리 등 환경 자료들에 대해서도 분류 작업을 거쳐 한국 측에 신속히 넘겨주기로 했음. 육 차장은 "정부는 미국 측과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하여 공동조사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 한·중 관계

● **中 훈춘서 내달 한·중 물류포럼 개최(5/18)**

- 중국 동북지역 물류 거점이자 북한과 중국의 협력개발 사업 교두보로 부상한 중국 훈춘(珲春)을 조명하는 한·중 국제학술포럼이 내달 9일 훈춘에서 열린. 한국의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이 주최하고 포스코와 중



- 국 길림신문이 후원해 '동북아 협력과 인프라 거점지역으로서의 훈춘, 가능성과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 포럼에는 한국과 중국의 학자·물류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떠오른 훈춘의 입지적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진단함.
- 이어 중국의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과 북·중이 합작하기로 한 라선특구 개발의 연결고리인 훈춘의 역할과 훈춘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국가 간 물류 협력 방안이 논의됨.
- 이번 포럼 토론에는 한국에서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과 이승률 동북아시아공동체연구회 회장, 추원서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고 중국에서는 정창권 훈춘시 부시장, 현동일·이종림·최철호 연변대 교수 등이 나섬. 공로명 전 외무부장관과 강호권 훈춘시장, 김진경 연변과학기술대 총장도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임.
- 남북물류포럼 측은 "중국 동북지역과 몽골의 자원 수송 창구이자 환동해권 물류 중심이 될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훈춘을 살펴보고 훈춘을 거점으로 동북아시아 국가 간 경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고 말했음.

다. 한·일 관계

● **日정부, 원전사고 공식 사과(5/16)**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 한국정부에 공식 사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6일 밝혔음. 오쓰카 코헤이 후생노동성 부대신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UN) 유럽본부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개회식 후 열린 한·일 수석대표 양자면담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공기와 바다로 누출돼 주변국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일본식품에 대한 한국 국민의 선호를 감안해 원전 사태로 인한 과도한 불안감이 일본 식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원전사고에 대해 한·중·일 3국이 대응하는 식품안전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음.
- 오쓰카 부대신은 "내일(17일) WHO 총회 테크니컬브리핑에서 원전사태가 공공보건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3국 보건장관회의에서 공조체제를 마련하자"고 동의했음.

● **"日국회, 내주 중 한일도서협정 비준할 듯"(5/17)**

- 일본 국회가 조선왕실의궤 등을 한국에 돌려준다는 내용의 한일도서협정을 내주 중 비준할 것으로 예상됨. 17일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19일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을 심의할 전망이다. 17일에 열린 외교방위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의제로





삼지 않았음.

- 이 외교소식통은 "통상적인 참의원 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25일이나 27일에 열릴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도서협정을 비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거론한 '이명박 대통령이 21~22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선왕실의궤를 들고 귀국 한다는 방안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참의원이 끝내 심의를 거부하더라도 일본 국회법 등 규정에 따르면 오는 30일에는 이미 중의원을 통과한 한일도서협정이 자동 비준됨. 협정 내용상 비준 후 6개월 안에 책을 돌려주게 돼 있는 만큼 일본 정부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국 방문이나 광복절(8월15일) 등을 계기로 조선왕실의궤 등의 반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 "日, 조선왕실의궤 가을 반환 검토"(5/18)

- 일본 정부가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 도서를 올 가을 반환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음. 이 통신에 따르면 조선왕실의궤 등 1천205책을 한국에 돌려주기로 한 한일도서협정이 이달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일본 정부는 올 가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 방문에 맞춰 반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한일도서협정을 당론으로 반대해온 자민당은 이날 열린 참의원 운영위원회에서 19일 도서협정의 심의에 응하기로 했음. 운영위원회를 거쳐 참의원 본회의에 한일도서협정이 상정될 경우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등이 찬성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돼 국회 비준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보임.

#### ● <日공무원들, 한국 관광객 유치 가두홍보>(5/18)

- "규슈(九州) 지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로부터 안전합니다. 규슈로 여행 오세요." 18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일본인 50여명이 시민에게 관광 홍보 책자와 열쇠고리를 나눠줘 눈길을 끌었음. 이들은 일본 규슈 지역 공무원들로 구성된 '한국인 관광객 유치단'임. 유치단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규슈 지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자 홍보를 위해 직접 한국을 찾았음. 일부는 서울 방문에 앞서 부산의 거리에서도 홍보활동을 펼쳤음.
- 규슈 지역 현지사 대표인 히로세 가쓰사다 오이타현 지사와 나카무라 호도 나가사키현 지사, 구마모토·미야자키·가고시마현 부지사 등은 이날 박석환 외교통상부 차관과 모철민 문화관광부 차관 등도 만났음.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지방 공무원들까지 나선 상황은 최근 일본 관광산업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줌.
- 일본 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에는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각각 11.5%와 2.2%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진이 발생한 3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음. 한국인 관광객도 지난해 3월에는 16만9천295명이었지만 올해 같은 달에는 8만9천100명에 그쳤음.





● <李대통령, 日센다이 피해지역 방문> (5/21)

-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일본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臺)시 일대의 대지진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이재민을 위로했음. 공식 정상회의는 22일 도쿄에서 열기로 했지만 이에 앞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재난관리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피해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은 것임.
- 이 대통령은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을 위로하기 위해 센다이 부근 나토리(名取)시의 유리아게(門 밑에 水+上) 구민회관을 방문하고, 다가조(多賀城)시 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수용시설을 찾았음. 이 대통령은 또 오후에는 센다이 총영사관에서 인근 지역의 동포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교민 피해 상황을 청취할 예정임.
- 이어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합동으로 아즈마 종합운동공원에 차려진 후쿠시마(福島) 이재민 피난소에서 피해 현황을 점검함.
- 지난 3월 사상 최악의 대지진과 이어진 쓰나미로 참사를 당한 센다이는 우리나라 여행자와 재외교포가 많은 곳으로 피해 직후 우리나라 119구조대가 활동을 벌인 곳임.

● <日, 韓日 정상에 농산물 안전성 부각 총력전>(5/22)

-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맞아 농산물 안전성 부각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음.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최악의 방사성 물질 대량 유출 사고로 일본산 농산물이 세계인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임.
-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담 첫 날인 21일 나란히 후쿠시마를 방문해 현지에서 생산된 과채류를 시식했음.
- 후쿠시마 시내 아즈마 종합체육관을 찾은 3국 정상은 시식대에서 현지에서 생산된 체리와 방울토마토, 오이 등을 맛보는 세레모니를 가졌다. 간 총리는 직접 오이 등을 한일 정상에게 권했음. 외국 정상이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방문한 것도, 현지에서 생산된 과채류를 시식한 것도 처음임.
- 간 총리는 후쿠시마에서의 시식 행사가 끝난 뒤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산 과채류를 직접 드신데 대해 정말로 고맙다"고 감사를 표시했음. 3국 정상의 농산물 시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음.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간 총리 주재 만찬 요리의 식재료도 대부분 후쿠시마에서 가까운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조리됐음. 지바(千葉)산 생선과 송이를 비롯해 이바라키(茨城)산 땅두릅, 미야기(宮城)산 전복, 이와테(岩手)산 쇠고기, 아오모리(靑森)산 연어 등이 동원됐고 술은 후쿠시마산 일본 정통주인 히로키(飛露喜)가 제공됐음.
- 간 총리는 만찬석상에서 "(한일 정상의 후쿠시마 방문과 농산물 시식) 농산물 등의 소문 피해를 떨쳐버리는 데 정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



- 한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일본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음.
- 하지만 일본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함. 지금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매일 방사성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 세슘 오염은 확산되고 있음. 사고 원전에서 300km 떨어진 가나가와(神奈川)의 찻 앞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됐고, 남부의 오사카(大阪)에서도 세슘이 측정됐음. 원전 주변 바다의 어류와 해조류의 오염 사례도 줄을 잇고 있음.
  - 결국 일본이 세계인의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등의 기회를 활용한 일본산 농산물의 안전성 캠페인 보다 원전 사태를 하루 빨리 수습해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해 보임.

#### 라. 미·중 관계

##### ● 中, 美에 "군사 분야 존중·대등" 강조(5/16)

- 중국이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에 유독 군사 분야의 존중과 대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국방부의 첸리화(錢利華) 외사관공실 주임은 16일 신화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중국과 미국 간 군사 분야 발전과 관련해 중국은 최저선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존중, 상호신뢰, 대등, 호혜"라고 주장했다.
- 첸 주임은 이어 "그런 기초가 없다면 양국 군 관계는 근본 없는 물과 산과 같아 전면적인 발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중미 군 관계가 각 단계에서 구체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시키고 서로 좋은 점을 배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가자"고 제안했음. 그의 이런 언급은 신화통신 기자가 "발전하는 양국 군 관계에서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임.
- 첸 주임은 아울러 "중국과 미국의 군사 관계는 곡절을 겪어왔다"고 언급하고서, "중국은 존중, 상호신뢰, 대등, 호혜의 원칙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군 관계를 맺어 건강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국 군 관계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면서 "천 총참모장의 방미가 지난 1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공통인식을 실현하고 21세기 중미 간 새로운 형태의 군사관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음.
- 천 총참모장은 15~22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 기간에 카운트파트인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과 회담하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 이어 톰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차례로 만날 예정임. 미군의 대표적 해군기지인 버지니아주 노퍽기지, 세계 최대의 공군기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네바다의 벨리스 공군기지 및 조지아의 포트 스튜어트 기지, 캘리포니아의 포트 어윈 기지 등도 방문할 예정임.



● **中 천빙더, 美의 대만 무기 판매 거칠게 반대(5/20)**

- 천빙더(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 '황포'라는 단어를 사용해 반발했다고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 등이 20일 보도했음. 통신에 따르면 천 총참모장은 지난 18일 미 국방부에서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과 함께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제정한 대만과의 관계법이 사실상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법률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국내법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관여하는 것은 심한 황포라고 주장했다.
- 천 참모장은 또 대만이 미국에 F-16 전투기 판매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를 판매할 경우 미·중 관계는 손상될 것"이라면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로 나쁘냐 하는 것은 대만에 판매되는 무기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음.
- 그는 최근 중국의 국방력 증강에 대해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려고 시도해온 (전 대만총통) 리덩후이(李登輝), 천수이볜(陳水扁)이 이끄는 분리주의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음.

● **천빙더 "美, 中 위협론 과대포장"(5/20)**

- 천빙더(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19일 미국이 '중국 위협론'을 과장할 경우 양국 간 군사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천 총참모장은 미 국방대학 강연에서 중국의 군사위협론을 과장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왜곡하고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중미 간 군사적 유대관계를 위한 정치적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최근의 국방현대화 노력이 불행히도 근거 없는 의혹과 중국의 군사발전상에 대한 과대평가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국방력은 미국에 많이 뒤처져 있다"면서 솔직히 방미 후에 양국 간 격차를 확인하고 나니 깊은 비애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 "중국은 결코 미국에 도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 미국에서는 최근 중국이 차세대 스텔스기인 쥘(殲, J)-20의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등의 조치가 군사적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와 함께 아시아에서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마. 중·일 관계

● **〈원자바오 총리, 대일 친밀 행보 눈길〉(5/22)**

- 한중일 정상회담차 일본을 찾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일본과의 외교관계 복원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였음. 중국과 일본은 작년 9월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선박 충돌 사태 이후 몇 차례 정상



- 회동을 통해 겉으로는 관계를 회복했지만 외교적, 경제적으로 냉랭한 관계가 계속돼 왔음.
- 하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는 '자상하고 친밀한' 행보로 일본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을 보였음. 원자바오 총리는 당초 원전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를 방문해달라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요청에 난색을 표시했으나 결국 수용했음. 원자바오 총리는 이와 관련 21일 후쿠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방문은 나의 결단 이었다"고 말했음.
  - 후쿠시마 방문에 앞서 미야기(宮城)현의 피해지인 나토리(名取)시를 찾은 원자바오 총리는 "재해의 고난 중에 얻은 우정은 아주 고마운 것이다. 재해 지원을 통해 중일 관계가 더욱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음. 피해지의 쓰나미로 붕괴된 건물 앞에서는 꽃을 바치고 묵념했고, 피난소의 어린이들에게 팬더 인형을 나눠주고 이재민들과 격 없이 대화를 나누며 격려했음.
  - 현지 언론은 원자바오의 친밀 행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센카쿠 사태 이후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고 있다"면서 "내년에 예정된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이뤄질 세대교체를 앞두고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안정된 국제환경'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고 분석했음.
  -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이후 계속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중국은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홋카이도(北海道)와 서일본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한해 이달부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음. 다만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도호쿠(東北)·간토(關東) 12개 도현(都縣) 수산물과 농산물 및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수입규제는 계속하기로 했음.
  - 원자바오 총리는 "식품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농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완화해가겠다"고 말했음. 지금까지 중국은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38개국 가운데 가장 엄격한 규제를 가해왔으나 이를 완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임.
  - 일본으로서도 중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은 시급함. 동일본 대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돼야 함. 센카쿠 사태 이후 국내에서 정치적 궁지에 몰린 간 총리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진전을 통해 대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음.

#### ● 中, 日 농수산물 수입금지 일부 완화(5/22)

- 중국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계속하고 있는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음. 이 통신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오전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가까운 12개 도현(都縣)의 농수산물 수입 금





- 지조치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은 일본 서부의 아미나시(山梨)현과 아미카타(山形)현을 수입 금지 지역에서 제외하고, 채소와 유제품, 수산물 등을 제외한 식품은 방사선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음.
  - 간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조기 수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원자바오 총리는 "이웃 나라의 관심과 우려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면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음. 간 총리는 중일 간 공통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호혜관계'를 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원자바오 총리는 작년 9월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선박 충돌 사건을 피하기 위해 "해상에서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음.
  - 중일 정상은 이밖에 인적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중국 관광사절단의 일본 방문 ▲중국 유학생의 일본 복귀 지원 ▲대지진 피해지역 학생 500명의 중국 초청 등에 합의했음.
  - 원자바오 총리는 간 총리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했고, 간 총리는 "연내 적절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 하겠다"고 약속했음. 이날 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음.

## 바. 중·러 관계

### ● 中연변-블라디보스토크 우호도시 협약(5/19)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우호친선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연변일보가 19일 보도했음. 양측은 지난 18일 연길(延吉)에서 우호친선도시 협약 체결식을 했으며 관광과 경제무역 합작 협약도 체결했음.
- 신문은 지난해 연변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은 관광객이 12만 명에 달하고 연변을 방문하는 블라디보스토크 관광객도 해마다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측의 관광과 경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음.
- 중국은 지난해 11월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연변주 훈춘(琿春)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를 운행하는 여객 열차를 개통하고 지난달 훈춘-블라디보스토크-북한 라선을 잇는 북·중·러 3국 무비자 순회관광 코스를 개설하는 등 러시아 극동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있음.

## 사. 일·러 관계

### ● 러 외무부, 日 쿠릴방문 항의에 반박(5/17)

- 러시아 외무부가 16일 세르게이 이바노프 부총리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방문에 항의한 일본 측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음. 외무부는 이날 자체 웹 사이트에 올린 '러시아 정부 대표단의 쿠릴열도 방문과 관련한 일본 측의 반응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열도에 대한



- 러시아의 주권은 논박될 수 없는 국제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따라서 러시아 공직자들의 열도 방문에 대한 (일본 측의) 유감 표명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음.
- 앞서 이날 오전(현지시간)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은 주일 러시아 대사 미하일 벨리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 이루어진 이바노프 부총리의 쿠릴열도 방문에 대해 "수용할 수 없으며 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항의했음.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쿠릴열도의 영유권에 의혹을 제기하려는 지속적인 시도는 러-일 양국 이해관계의 추가적 발전에 필수적인 양국 간 건설적 분위기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이바노프 부총리는 앞서 15일 연방정부 주요 부처 장관들을 대동하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의 이투롭과 쿠나시르 등 2개 섬을 시찰했음. 대표단은 현지에서 연 '2007~2015년 쿠릴열도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 점검 회의에서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기존에 할당된 150억 루블(약 5천850억 원)의 연방 정부 예산외에 추가로 160억 루블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는 2차 대전 종전 이후 전승국인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음. 하지만 일본은 이곳이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였다고 주장하며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러시아는 쿠릴열도에 대한 주권은 재검토 대상이 아니며 버티고 있음.

#### 아. 기 타

##### ● '한중일' 도쿄 개최.. "후쿠시마·센다이 경유"(5/18)

- 개최 장소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도쿄(東京)에서 개최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은 그러나 도쿄 방문에 앞서 대지진 여파로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와 우리 교민의 피해가 컸던 센다이(仙臺)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음.
-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18일 "일단 정상회의 본 일정은 도쿄에서 진행하되, 후쿠시마와 센다이를 경유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조만간 일본 측으로부터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의 경우 3국 정상이 함께 방문할 예정이나 센다이의 경우 한·중이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한·중·일 정상회의 오늘 도쿄서 개최(5/22)

- 한국과 중국, 일본의 3국간 제4차 정상회의가 22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림.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난 3월 일본의 대지진과 잇따른 원전사고 등을 계기로 긴급 사태 발생 시 정보 공유 및 안전, 재난



관리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임.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비롯한 준비 작업을 촉진하기로 합의할 방침임.

- 이 대통령과 원 총리, 간 총리는 정상회의 본회담을 마친 뒤 공동회견을 통해 합의사항을 담은 정상선언문을 발표하고 비즈니스 서밋 오찬에 참석해 각각 축사를 함. 이어 이 대통령은 중국, 일본 정상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갖고 통상·경제 협력 확대 방안과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문제를 논의한 후 귀국함.

### ● <한·중·일 3국 정상선언문 요지>(5/22)

-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은 2011년 5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했음. 우리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소중한 인명손실과 막대한 물질 피해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하였음. 이번 사태는 3국간 지리적 근접성 및 3국 국민의 유대관계를 감안할 때 3국 협력은 본질적인 필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상기시켰음. 이와 함께, 우리는 3국 협력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견고한 모멘텀에 대해 만족을 표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의지를 공유했음.
- 3국 협력이 일본의 재난을 조기에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특히 재난과 곤경 시에 상호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음.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곤경을 극복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할 것임을 표했음. 우리는 올해 한국에 설립될 3국 협력 사무국에 관한 진전을 환영하였고, 앞으로 사무국이 3국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기를 희망함.
- 우리는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며, 각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심도 있는 이해를 증진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되는 3국 고위급회의에서 아시아 정책 대화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음.
- 동일본 대지진을 돌아보며, 일본은 원전 사고와 지진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중국 및 한국, 국제 사회와 폭넓게 공유하기로 약속함. 우리는 재난관리 및 원자력안전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부속문서와 같이 협력을 증진하기로 결정했음.
- 우리 역내 주요한 3국의 지도자들은 3국이 역내 활력과 역동성을 한층 제고하고, 아시아 지역의 왕성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음. 이러한 관점에서, 3국간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3국간 투자 체제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가능한 조속히 3국 투자협정 협상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음.
- 일본의 현재 상황과 그 함의를 고려하고,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진전과 3국 외교장관 및 통상장관들의 건의에 유의하면서, 우리는 산관



- 학 공동연구를 금년 내에 완료하고 그 후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했음.
- 미래세대를 위해 국제사회가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이 분야의 노력을 주도하기로 결심했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제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고, 부속문서와 같이 결정했음. 우리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의 결과를 승인하였음. 우리는 또한 3국 환경장관회의 틀 내에서 3국 공동행동계획의 진전과 학생 및 비즈니스 포럼의 성과를 환영했음. 우리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의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우리는 인적 문화적 교류, 특히 청소년간의 교류가 3국간 상호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을 인식했음.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청소년 간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미래 포럼'을 3국 청소년 우호만남의 틀 안에 설립하기로 결정했음.
  - 우리는 2012년이 일-중 관계정상화 40주년 및 한-중 수교 20주년인 점을 고려하여 2012년에 3국간 우호교류를 특별히 증진시키기로 결정했음.
  -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했음.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측 농축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가 표명됐음. 우리는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의 필수적인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우리는 6자회담의 2005년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목표들을 실현한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했음.

### ● <한중일 정상 '남북대화' 강조 주목>(5/22)

-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22일 3개국 정상회의 결과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적지 않은 함의를 지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에서 3개국 간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고 중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임.
- 우선 남북대화가 강조된 것이 주목됨. 간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제시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음. 3개국 정상선언문도 "우리는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의 필수적인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음. 이는 3개국 정상이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간 비핵화 회담-북미 대화-6자회담'의 3단계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또 '6자회담 재개 여건을 강조한 것은 남북대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결국 3개국 정상은 한국이 제안한 '남북 비핵화 회담'에 침묵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나아가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이 북한에 비핵화 회담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임.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을 합의했음. 이미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지난달 26~29일 방한했을 때 한·중 양국은 '3단계안'에 합의한 바 있음.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 비핵화 회담'에 나서도록 설득할 경우 교착상태인 한반도 정세는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임.
  - 외교소식통은 "한·중·일 정상이 남북대화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나오도록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음. 남북대화와 더불어 북한 우리 농업축적프로그램(UEP)에 대한 언급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임. 3개국 정상선언문은 "한반도 비핵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했다"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농축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가 표명됐다"고 밝혔음.
  - 이처럼 UEP를 우려하는 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때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함. 당시 미·중 공동성명은 "양국은 북한이 주장한 우리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강조한 바 있음.
  - 한국은 당초 합의문에 미·중 정상회담 수준의 UEP 내용을 넣으려고 했지만 중국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UEP를 우려한다'는 표현에 또다시 동의한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옴. 중국이 미국 외에 다른 6자회담 참가국과 체결한 공식문서에서 UEP에 대한 우려를 용인한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이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 <李대통령 "3국 FTA에 적극 임할 것">(5/22)
-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함께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쿄 게이단렌(경단련, 經團聯)에서 열린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음. 회의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게이단렌 회장, 완지페이(萬季飛)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3국 주요 경제인 100여 명이 참석했음.
  -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통상 관계를 보면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교역이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이 필요하고 한국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음. 이 대통령은 "3국 경제가 단순히 3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서 "기업인 스스로도 상호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게 좋다"고 밝혔음. 이 대통령은 "어느 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졌다면 3국에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면서 "상호 협력과 공동 성장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음.

- 한·중·일 경제인들은 비즈니스 서밋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실현과 아시아지역 및 세계의 지속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음. 한편, 3국 정상은 우리나라가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음. 현재 일본은 GGGI에 기여금을 제공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중국은 GGGI와 '산동지역 저탄소발전 전략' 연구사업을 공동 착수했음.

#### ● <한중일 협력사무국 7월 공식 개소>(5/22)

-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봉길 외교통상부 국제경제협력대사가 22일 3국 협력사무국의 초대 사무총장에 임명됐음. 이로써 협력사무국은 지난해 5월 제주도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된 뒤 1년 만에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게 됐음. 또 중국의 마오닝 한반도사무실 주임과 일본의 마쓰가와 루이 참사관이 각각 협력사무국의 사무차장으로 임명됐음.
- 사무총장은 2년 임기로 한국, 일본, 중국이 차례로 담당하고 나머지 2개국이 사무차장을 맡는다는 합의에 따른 것임. 사무국의 법적 절차도 최근 마무리됐음. 지난해 12월 3국이 서명한 협력사무국 협정은 지난 17일 중국을 마지막으로 3개국 의회에서 비준이 끝났음.
- 정부는 직원 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께 외교부 본부와 주한일본 대사관, 주한중국대사관이 가까운 서울 광화문 인근에 협력사무국을 개소할 예정임. 신 사무총장을 비롯해 마오닝·마쓰가와 사무차장은 사무국에 상주하게 되고 한·중·일 3개국에서 모두 30여 명의 실무직원이 채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앞으로 사무국의 규모가 확대되면 인천 송도 등에 독립적인 건물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사무국은 앞으로 3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정상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지원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며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됨. 또 법적 소송절차 면제, 공관 불가침, 통신 보호 등의 혜택을 누림. 사무국 직원에게는 소득세 및 출입국 제한 면제 등의 특권이 주어짐.
- 신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출범 초기부터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어 3개국이 사무국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음.

####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